

나. 연구개발수행 결과

(1) 잡곡 재배현황 분석

2010년 이후 조와 기장 및 수수의 통계자료는 기타 잡곡으로 편입되어 통계자료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농림축산식품부 ‘농업경영체등록정보’ 확정 필지정보를 이관 받은 이관 받은 68,265 필지정보(수수 21,296, 조 8,797, 기장 9,845, 팥 28,327)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잡곡의 재배면적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. 201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잡곡 재배농가의 품목별 재배면적은 수수가 2,578.4ha로 가장 컸으며, 다음으로 팥 1,855.9ha, 기장 2,030.0ha 조 894.0ha 순 이었다. 시도 및 시군별 수수 재배면적을 분석한 결과 그림 1-3에서와 같이 강원도 738.7ha(28.6%), 충청북도 644.3ha(25.0%)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었고, 시군별로는 영월군(12.7%) 단양군(10.1%), 제천시(10.0%), 안동시(7.8%), 정선군(7.4%) 순으로 재배되고 있었다. 조의 재배 현황은 전라남도 497.3ha(55.6%), 경상북도 111.5ha(12.5%)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었고, 시군별로는 신안군(12.3%) 고흥군(9.3%), 제주시(7.4%), 해남군(6.8%), 진도군(4.7%) 순 이었다. 기장의 재배 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 1,472.6ha(72.5%), 전라남도 368.6ha(18.2%)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었고, 시군별로는 제주시(65.6%) 신안군(8.1%), 서귀포시(7.0%), 영광군(3.6%), 해남군(3.1%) 순 이었다. 또한 팥의 재배 현황은 전라남도 507.3ha(27.3%), 강원도 428.8ha(23.1%)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었고, 시군별로는 영월군(5.1%) 신안군(5.0%), 경주시(4.9%), 무안군(4.9%), 정선군(4.0%) 순으로 재배되고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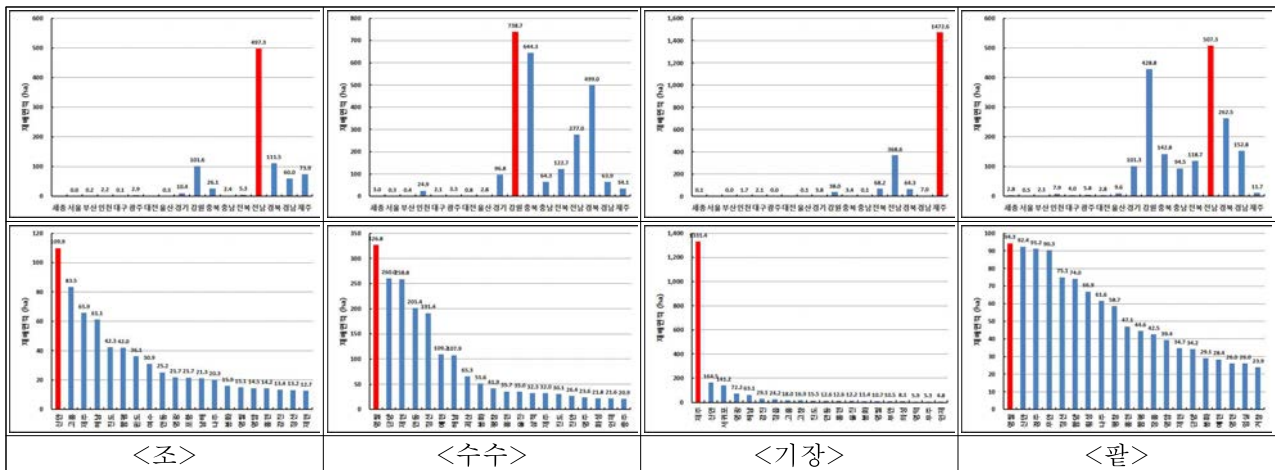


그림 1-3. 시·도별 잡곡(조, 수수, 기장, 팥)의 재배면적 현황

경지 규모별 재배면적 비율을 분석한 결과 표 1-4와 같이 0.25ha 이하로 재배하는 농가비율이 59.4%를 넘었고 1ha 이상 대면적에서 재배하는 농가의 비율은 수수 5.6%, 기장 4.8%, 조 1.2%, 팥 3.0%로 나타나 대부분 원료곡 생산위주의 10a이하의 소규모 영농형태로 재배되고 있어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.

표 1-4. 경지 규모별 잡곡(조, 수수, 기장, 팥)의 재배면적 비율

| 작물 | <0.25ha | 0.25-0.50ha | 0.50-0.75ha | 0.75-1.00ha | >1.00ha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조 | 75.8 | 18.2 | 3.8 | 1.0 | 1.2 |
| 수수 | 55.5 | 27.6 | 8.3 | 3.1 | 5.6 |
| 기장 | 43.9 | 39.6 | 9.1 | 2.6 | 4.8 |
| 팥 | 70.8 | 18.5 | 4.7 | 3.0 | 3.0 |
| 계 | 59.4 | 27.0 | 6.9 | 2.7 | 4.1 |